

# 남구청 이승윤, 2차 관문 뚫었다



지난 2일 청주 김수녕국가대표경기장에서 끝난 2025 국가대표 2차선발전전을 통과한 광주·전남 공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수현, 이은경, 오예진, 안산, 김수린, 최미선, 이승윤.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 2025 양궁 국가대표 2차선발전...남녀 20강 가려져

### 김수린·안산·최미선·오예진 안방 축제 주인공 다짐 '올림픽 10연패' 남수현·국가대표 이은경 견재 과시

이승윤(남구청)이 2025 광주세계 양궁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2025 양궁 국가대표 리커브 2차선발전전을 통과했다.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승윤은 지난 2일 청주 김수녕양궁장에서 끝난 남자부 2차선발전에서 배점합계 46점을 기록, 18위로 20강에 안착했다. 파리올림픽 태극전사들도 '그 실력 그대로' 견재를 과시했다. 남자양궁 3관왕 김우진(청주시청·94점)이 남자부 1위를 기록했고, 김제택(예천군청

·91점)이 2위, 이우석(코오롱엑스텐 보이즈·73점)은 5위에 자리했다. 광주·전남 남자 선수로 유일하게 2차 관문을 뚫은 이승윤은 "내년 세계선수권대회가 안방에서 열리는 만큼 주인공으로 그 자리에 꼭 서고 싶다"며 "다시 시작"이라는 각오로 초심으로 돌아가 선발전 과정에서 드러난 아쉬운 부분을 보완해 3차선발전에서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든든한 지원과 응원으로 힘이 돼준 김병내 남구청장님과

남구청 임직원, 팀 동료들에게 감사하다.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반드시 태극마크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여자부에서는 1차 선발전을 3위로 통과한 김수린(광주시청·84점)이 3위를 기록했고, 파리올림픽 '여자 양궁 10연패' 주역 남수현(순천시청·77점)이 5위, 2020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광주은행텐양궁단·74점)이 8위,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미선(광주은행텐양궁단·71점)이 9위에 자리하며 영광 재연을 노린다. 2024 여자양궁 국가대표 오예진(광주여대·69점)과 이은경(순천시청·43점)은 각각 10위와 17위로 2차 관문을 통과, 파리행 발발 아쉬움을 털고 광주에서 빛나는 도전에 나선다는 각오다. 여자부 1위는 신홍 강호 염혜정(경

희대·90점)이 2위는 강재영(현대모비스·88점)이 차지했다. 파리올림픽 태극전사 전훈영(인천시청·76점)은 7위, 임시현(한국체대·62점)은 11위에 자리했다. 2차 선발전을 통과한 남녀 각 20명은 내년 3-4월로 예정된 3차선발전전에 나선다. 이들은 역배점 없이 원점에서 다시 치열한 경쟁을 치러 남녀 각 8명의 2025 양궁 국가대표를 선발한다. 국가대표 남녀 8명은 최종 순위 평가전을 치러 남녀 각 상위 3명이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출전 티켓을 거머쥐게 된다. 1985년 서울, 2009년 울산에 이어 16년 만에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내년 9월5일부터 12일까지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릴 예정이 다. /박희중기자

# 김하성, 샌디에이고와 상호 합의 옵션 거부 FA 예상 몸값 '4년 680억원'

김하성(29)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MLB)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 나오면서 몸값과 행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소속 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구단은 3일 "김하성이 옵션 발효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옵션 거부로 FA가 된 김하성은 자신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구단과 계약하게 됐다. 김하성은 현재 미국 스포츠 통계 사이트, 언론 매체들로부터 FA 10-20위권의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몸값을 분석한 매체도 있다. MLB 연봉 분석 사이트인 스포트랙은 최근 김하성의 가치를 계약기간 4년, 총액 4천911만3천276달러(약 678억원), 연평균 1천227만8천319달러(170억원)로 평가했다. 김하성이 장기 대형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다고 분석한 매체들도 있다. MLB닷컴은 김하성을 FA 17위로 평가했다. FA 시장에 나온 유격수 자원 중에선 월리 아다메스(8위) 다음으로 높다. 이 매체는 "어깨 문제만 해결된다면



김하성 /AP=연합뉴스 DB

영입을 원하는 팀이 나올 것"이라며 적합한 구단으로 애크랜드 브레이브스, 보스턴 레드삭스, 그리고 이정후의 소속 팀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꼽았다. 온라인 매체 디에슬레틱은 "김하성이 다른 팀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받을 것"이라며 "유격수 부문 경쟁자가 거의 없고 2루와 3루 등 다양한 포지션을 맡을 수 있다는 것도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퍼트 보완, PGA 퀄리파잉 준비" 대세 장유빈, KPGA 투어 2024시즌 대상 확정

## 대세 장유빈, KPGA 투어 2024시즌 대상 확정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2024시즌 대상 수상자 장유빈이 미국 무대 진출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장유빈은 3일 열린 KPGA 투어 동아회원권그룹 오픈 마지막 날 4라운드 최종 합계 7언더파 27타 공동 25위로 마쳐 2024시즌 제네시스 대상 수상을 확정했다. 장유빈은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 부문 2위 김민규와 격차를 1천점 이상으로 유지, 7일 개막하는 시즌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 결과와 관계 없이 올해 대상의 영예를 누렸다. 대상 포인트 외에도 삼금과 평균 타수, 평균 드라이버샷 비거리 등 주요 부문 1위를 독식하는 장유빈은 올해 2승과 아마추어 시절인 2023년 군산CC 오픈을 합쳐 투어 3승을 거뒀다. 2002년생으로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 게임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그는 "올해 초에 대상을 목표로 하지는 마음을 먹었는데, 목표를 이렇게 빨리 이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목표를 이룬 성취감이 크고, 좀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돼서 나 자신에게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대상 수상으로 장유빈은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퀄리파잉스쿨



장유빈이 3일 열린 KPGA 투어 동아회원권그룹 오픈 최종라운드 11번홀에서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보고 있다. <KPGA 제공>

출전권과 DP 월드투어 1년 출전 자격을 받게 됐다. 장유빈은 "제 시즌은(PGA 투어 퀄리파잉 대회)이 열리는 12월까지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실력을 끌어올려서 퀄리파잉 스쿨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미국 무대 진출을 위해 "제가 샷으로 나오는 실수보다 퍼터로 점수를 잃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며 "퍼터가 사실 제게 오래된 숙제인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자신감을 얻으면(미국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광산구청장배 제3회 수중·핀수영 대회' 성료

올해로 3회째를 맞은 '2024 광산구청장배 제3회 수중·핀수영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진) 광산구 수중·핀수영협회는 3일 '2024 광산구청장배 제3회 수중·핀수영대회'가 지난 2일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에서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광산구 체육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열고, 생활체육동호회원 70여 명이 참가해 33수중달리기, 50도끼 핀수영,

스노클링겨주, 25거북이 핀수영 등 총 4개 종목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색다른 종목을 발굴, 동호회원들에게 다양한 재미를 선사하는 계기도 제공했다. 민기홍 광산구 수중·핀수영협회장은 "이번 대회 성공 개최를 밑거름 삼아 앞으로 더 많은 광산구민들이 수중 스포츠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윤근기자

# '3년 총액 26억' 재계약...현역 사령탑 최고대우 'V12' 이범호 감독 '초대박'

프로야구 팀 통산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일궈낸 KIA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이 현역 사령탑 최고대우로 재계약했다. KIA 구단은 3일 "이범호 감독과 3년간 총액 26억원(계약금 5억원, 연봉 5억원, 옵션 6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KBO 리그 10개 구단 감독 중 옵션을 포함해 최고 대우 계약이다. 이 감독은 올해 2월 계약 기간 2년, 계약 금액 총 9억원(계약금 3억원, 연봉 3억원)에 사인한 바 있다. 그러나 KIA는 이 감독의 우승 성과를 높게 평가해 '우승 감독'에 걸맞은 계약 조건

으로 계약서를 다시 썼다. 이범호 감독은 올 시즌 팀을 7년 만에 정규리그 1위와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1등 공신이다. 올초 어수선한 팀 분위기 속에서 지휘봉을 잡은 이 감독은 탁월한 리더십과 소통 능력으로 선수단을 아우르면서 이른바 '소통 야구'로 올 시즌을 석권했다. 이범호 감독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구단에 감사 드린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신뢰를 보내준 구단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범호 KIA 감독이 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재계약 협상을 마무리 한 후 심재학 단장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이어 이 감독은 "광주에서 우승을 결정지은 그날의 함성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다. 통할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타이거즈 팬들의 응원과 성

원 덕분"이라며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 임기 내에 우승 트로피를 다시 들어올릴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홍철기자

# KIA 임기영·장현식·서건창 FA 자격 취득

## KBO, 2025 FA 자격 선수 30명 명단 공개

KBO는 지난 2일 2025년 FA 자격 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KIA에서는 임기영(투수), 장현식(투수), 서건창(내야수) 등 3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25년 FA 자격 선수는 총 30명이다. FA 등급 별로는 A 등급 3명, B 등급 15명, C 등급 12명이다. 구단 별로는 KT가 5명으로 가장 많

고, 이어서 NC가 4명, KIA, 두산, SSG, 롯데, 한화, 키움에 각각 3명씩, 삼성 2명, LG 1명이다. 또한, 비FA 다년 계약 체결 선수 및 기존 FA 선수 중 계약 기간 연장 옵션 발동 등으로 FA 자격 요건을 신규 취득 또는 재취득했으나 올해 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FA계약 유보선수' 11명도 함께 공시했다.

이에 해당 선수는 2025 FA 자격 승 인신청을 할 수 없으며, FA 자격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해까지 유보된다. 2025년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2일 이내인 4일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KBO는 신청 마감 다음 날인 5일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공시할 예정이다. FA 승인 선수는 공시 다음날인 6일부터 모든 구단(해외 구단 포함)



임기영 장현식 서건창

과 선수 계약을 위한 교섭이 가능하다. /주홍철기자

# 챔피언 KIA, 김주찬·김민우 코치 영입... 'V13' 시동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김주찬, 김민우 코치를 영입했다. 김주찬 코치는 2021년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올 시즌에는 롯데

자이언츠의 타격 코치를 맡았다. 김민우 코치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KIA 타이거즈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다.

김주찬, 김민우 코치는 각각 벤치 코치와 1군 수비 코치를 담당한다. 김주찬 벤치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시즌 중 데이터를 바탕으로

로 감독의 경기 운용에 여러가지 조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시즌 코칭스태프 보직 개편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주홍철기자